

##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영학회는 문화산업에 대한 경영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을 고취하고, 학계와 업계, 그리고 정책 당국 간에 활발한 지식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문화관광부와 함께 논문 공모전을 기획하였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문화 콘텐츠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해외 진출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과제를 발굴하고자 논문 공모 주제를 '2007 한국 문화 콘텐츠의 해외 진출 전략'으로 정하였습니다.

금년 4월 중순에 논문 공모 사실을 공지하고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논문을 모집한 결과, 약 50여 편의 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논문 제출 요건을 「경영학연구」 편집 방식으로 했고, 주제가 매우 세분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응모 열기는 대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응모자는 국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자, 실무 종사자, 정책 담당자, 학생 등을 망라했습니다. 또한 응모 장르도 영화, 게임, 공연, 음악, 드라마, 애니메이션, 만화, 광고, 출판, 디자인 등으로 매우 다양했습니다.

경영학회는 응모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위원회는 엄격한 절차에 의한 심사를 하여 15편의 우수 논문을 선발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선발된 논문 중에서 다시 우수상(3편-문화관광부장관상, 상금 각 500만원), 장려상(4편-경영학회장상, 상금 각 200만원) 등에 해당하는 논문을 가려 지난 8월에 열린 하계통합학술대회에서 시상하였습니다.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선진국들은 문화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여 문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선진화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회는 그동안 문화산업에 대한 집약된 관심을 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학회는 문화산업에 대한 경영학계의 관심을 고취하고, 금번 공모전이 거둔 연구적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상위 11편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특별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호를 계기로 향후 문화콘텐츠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그 연구적 성과를 실무 종사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활용하여 좋은 성과가 창출되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특별호가 발간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수고해 주신 「경영학연구」 편집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7년 11월

'2007 한국 문화 콘텐츠의 해외 진출 전략' 논문 공모전 책임 연구원

김 경 목 드림